“4차 산업혁명 이끌 창의적 인재 키울 것”

취임 1년 맞은 강동완 조선대 총장

치매연구·평생교육 기반 조성
학과중심 벗고 수평교육 전환
이사회 갈등 풀기 위해 최선

조선대는 2주기 대학기관 평가인증에서 광주·전남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대학인증’을 획득했고, 대학 특성화 사업(CK) 3차년도 연차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올렸다. 굵직한 국책사업도 다수 유치했다. 강동완〈사진〉 총장이 재임 기간 일궈낸 결실이다. 강 총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총장과 일문 일답.

-취임 1년 성과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223억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70억원), 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20억원)에 선정돼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꼽고 싶다. 4차 산업형 융·복합 전문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한 게 대표적이다. 치매 국책연구사업(169억원)과 전국 최초로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298억원)을 유치하고 IBM인공지능인 ‘왓슨’을 도입해 의료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조선대는 치매연구 선도대학으로서 주요 언론들이 주목할 정도의 성과를 올렸고 학교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자부한다.

-‘2030 대학발전 계획’이 궁금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학문·행정 단위를 아우르는 ‘2030 대학발전 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공감과 소통을 장을 마련해 구성원들의 고견과 지혜를 모아 미래 발전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계 주요 대학들은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지수가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의 혁신 마인드가 중요하다. 구성원의 뜻이 모이지 않으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수 없다. 구성원들이 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전국 모든 대학이 정부가 시행하는 대학구조 개혁 평가에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대도 분야별 평가지표와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정원감축이나 정부 재정지원과 직결된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명운이 걸려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강도 높은 대학 혁신이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대학 신입생이 줄고 있다.

▲대학은 고등교육뿐 아니라 평생교육 체계를 갖춰야 한다. 조선대가 미래사회융합대학을 호남 최초로 개설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평생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사회융합대학은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내년 3월 문을 여는 미래사회융합대학은 직장인, 시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가 500명에 달하는 데 앞으로 1000명까지 끌어올릴 생각이다.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려면 기숙사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안도 신련하고 있다.

-법인 이사회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3기 법인 이사회 구성을 놓고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회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대학의 각종 현안이 이사회의 의결 사안이라 어려움이 따른다. 구성원간 갈등이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해와 배려,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특히 법인의 책무성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법인 전입금과 법정 부담금에 대한 과감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학 집행부와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겠다.

-조선대의 미래교육 모델은?

▲단순하게 학과를 통·폐합하는 내용이 아니다. 학생들이 전공필수·선택 등에 매달리는 학과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을 공부하는 수평교육의 시대가 왔다. 학생들의 수평·융합적 사고능력을 길러주려는 교육 모델을 구상하고 이다. 이는 나와 너, 좌우를 모두 아울러야 가능하고 공동체 의식이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 수평·융합적 사고가 창의성을 유발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길러낼 것이다.

-대학 르네상스 비전은?

▲르네상스는 크게 휴먼·과학·경제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평화는 인류의 항구적으로 정신이자 가치다. 이를 교육에 접목해 전 세계에서 평화 인문학을 학습·연구하고 싶은 청년,학생, 연구자,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국제평화 대학원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휴먼 르네상스’다. ‘과학 르네상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 특성화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책치매 연구단이 대표적이다. 이미 유전정보와 CT영상 정보로 구성된 빅데이터와 그 분석시스템을 구축,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최첨단 AI(인공지능)를 개발했다. ‘경제 르네상스’는 대학 가치의 산업화와 대학의 혁신적 교육 및 연구 등 자산을 콘텐츠화하고 공유화하는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조선대는 그동안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했다. 조선대는 광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UN합창단을 초청해 광주시민과 함께 세계 평화와 화합을 노래하는 장을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광주의 평화정신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연이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국제화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국제화 장학금을 도입해 해외체험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이제 학생들이 교실에서 교육받던 시대에서 벗어나 전 세계로 나가야 한다. 글로벌 안목과 창의·도전정신을 가진 인재를 길러냄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청소년 예체능 재능기부 앞장

전라·제주권 주관기관 선정

전남대학교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는 ‘전라·제주권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운영사업’의 주관기관(사업단장 박현우·체육교육과 교수)에 선정됐다.

‘2017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운영사업’은 다양한 체육·예술 교육기부 체험자원 확대 및 발굴을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최근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주관기관을 공모했다.

전남대는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와 음악교육과가 공동으로 참여해 전라·제주권 거점대학에 선정됐으며, 향후 8개월간 1억 5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부사업을 펼치게 됐다.

전남대학교는 전라·제주 지역의 여건에 맞는 체육·예술 분야 거점대학으로서 지역사회의 교육기부 인프라를 구축해 시의성 있고 전문적인 체육·예술 활동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체육자연과학 영역(김영관 교수·체육교육과), 체육인문과학 영역(김준 교수·체육교육과), 음악 영역(이미경 교수·음악교육과) 등으로 세분화해 특화된 시스템 운영을 통해 교육기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박현우 사업단장은 “지역사회의 학생들에게 질 좋은 체육·예술 분야 교육기부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인해 강조되고 있는 창의적이고 인성이 함양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영광 친환경차 연구센터 인재양성 협력

호남대학교 프라임사업본부(본부장 정영기)는 최근 영광 대마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 E-모빌리티연구센터(센터장 노기한)와 친환경자동차분야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E-모빌리티연구센터는 Electronic-Mobility(친환경 전기구동 방식의 1~2인 탑승을 위한 개인용 이동수단) 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해 정부와 업체가 지원하고 있는 연구센터이다.

특히 중소, 중견 부품업체 주도의 산업구조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와 공동 R&D 수행, 고가 장비를 활용한 시험 및 평가 업무 지원, 기술자문 및 기술 교육 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력체를 운영하여 기술개발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자동차분야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산업과 양 기관의 공동발전에 기여를 약속했다.

한편, 교육부의 프라임사업은 사회변화,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대학의 교육개혁을 통해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전국 21개 대학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호남대가 유일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학교 식중독 환자 5년간 657명 발생

학교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학생이 최근 5년간 1만2000여명으로 연평균 2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학교 식중독 188건이 발생해 총 1만2693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38건의 학교 식중독이 발생해 학생 2538명이 식중독에 걸리는 셈이라고 곽 의원 측은 설명했다.

2013년 이후 학교 식중독 발생과 환자가 최다인 지역은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로 총 39건, 322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경기에 이어서는 서울(21건·2812명), 인천(20건·1715명), 경북(20건·769명), 전남(17건·657명), 전북(13건·1천55명), 충남(12건·427명) 순으로 학교 식중독이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식중독이 전체의 58.0%인 109건으로 제일 많았고 초등학교는 41건, 중학교는 34건이었다.

역학조사가 완료된 학교 식중독 134건을 보면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물질’은 병원성 대장균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로바이러스 41건, 캠필로박터 제주니 18건,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곽 의원은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면역이 약한 학생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학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걱정 말아요, 청춘

학업과 취업 걱정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을 위한 정신건강캠페인이 최근 동신대학교에서 열렸다. 동신대 학생상담센터는 중앙도서관 로비에서 국립나주병원과 공동으로 2017 대학생 정신건강캠페인 ‘Talk to you MIND’를 진행했다. 〈동신대 제공〉

부안 숙박시설
(모텔) 매매.임대

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

직접 운영시
월 수익 2,000만원 가능

(2개동 룸 43개)

감정가 16억
매가 9억 (1개동 매매시 5억)
(융 6억, 보 1억, 실투자 4억)

(주택가능, 펜션, 모텔 적합)

010-6670-9800

상무지구 상가
매매

시청 1분. 금융가대로변
현대아파트 후문 앞

8층 중 4층 (45평)

내부깨끗 / 주차 가능

보 2천 월 100만

→ 매가 1억9천 (융7천)

영 광 주 택
매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깨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8천8백

법률경매 ㈜대신경매
노후대비 최적합

1)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1층
실평수 34평 (코너)
감정가 16억 → 최저가5억7,700만

2) 금남로 16층 (상가건물)
토지 488평 건 6,000평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40억

3) 광산구 신가동 (4층상가건물)
토지 76평 건 192평
감정가 7억1천 → 최저가 7억1천

4) 광산구 월곡동 (상가주택)
토지 51평 건물 134평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6천

5) 동구 충장로 (4층 상가건물)
토지 215평 건물 157평
감정가 11억 → 최저가 8억8천

5)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지 2,546평 건물 1,738평
감정가 90억 → 최저가 50억

1) 충남 태안 (4층 콘도) 바닷가 1분
토지 831평 건물 1,040평
감정가 40억 → 최저가 9억4천

1) 충남 태안 (4층 콘도) 바닷가 1분
토지 831평 건물 1,040평
감정가 40억 → 최저가 9억4천

3) 익산시 중앙동3가 (3층상가건물)
토지 77평 건물 254평
감정가 5억9천 → 최저가 4억1천

4) 화순 도곡 (5층 호텔)
토지 617평 건물 856평
감정가 26억 → 최저가 14억8천

5) 화순 도곡 (3층 무인텔)
토지 995평 건물 991평
감정가 38억 → 최저가 27억

6) 전북 고창 흥덕면 (숙박시설)
토지 454평 건물 464평
감정가 7억9천 → 최저가 3억9천

010-7384-7800

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전문직업 컨설팅반
(프리 1년반)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